

가치관의 혼돈

The Chaos of Sense of the Values.

김 은 태 · 한국자동차공학회 사무국장

Eun-Tae Kim · KSAE General Secretary

1.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왜 우리나라는 둘로 나누어져 있어? 그건 말이야 옛날에 김일성과 공산당들이 정권을 잡고 땅을 빼앗기 위해 일부러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싸움을 하여 그렇게 된 거야. 그럼 나쁜 사람들이네. 그럼 아주 나쁜 사람들이지. 그런데 지난번 TV를 보니까 고향방문단으로 남쪽에 온 북한 사람은 큰 소리 치며 김정일 장군만세를 외치는데 우리사람은 북한에 가서 아무 말도 못하던데...

2. 중학생 아들이 아빠에게 물었다. 정말로 북한이 우리보다 나쁜 나라인가요? 아니 이 녀석아, 너는 아직 그런 것도 모르냐. 아니 아빠, 우리가 보낸 비전향 장기수는 북한에 돌아가서 영웅대접을 받았다던데, 북한을 탈출하여 우리나라로 오겠다는 사람을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해 중국을 떠돌고 있고, 또 재수 좋게 우리나라에 온 탈북자가 자기 부인을 구하기 위해 다시 북한에 다시 갔다가 잡혀서 총살당했는데, 우리정부에서는 가족에게 남들에게 알려지지도 못하게 하고 지급하던 연금도 중단시켰다고 그러던데...

3. 고등학생이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독도가 진짜 우리 땅이야? 이 녀석이 지금정신이 있나, 없나, 그걸 말이라고 하나? 그런데 일본정부와 사람들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단체하고 언론만 떠들지 정부는 아무런 성명도 없던데? 그건 우리정부의 입장이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려는 입장에서 그런 거지. 그렇지만 아버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도 못하는 것이 어디 있어, 진짜 내 것이면 남이 탄소리하면 혼내주어야지. 외국 지도에는 다께시마라고 표기된 것도 있다던데...

4. 대학생 아들이 입에 술 냄새를 풍기며 저녁 늦게 들

어와 아빠에게 물었다. 아버지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는데 도대체 저의 가슴속 흰 도화지위에 인생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적성에 맞는 것을 전공으로 선택하여 열심히 공부하여 졸업 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가능할지 두려워해요. 대학공부가 취직공부가 아닐 진데, 4년 간 취업공부만 하여도 취업이 될지도 모르고 실사 취업을 하였다 하여도 회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무엇이 가치 있고 성공적인 삶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아버지는 50평생 직장생활을 했어도 우리는 강북의 30평 아파트에 겨우 살고, 제 등록금을 걱정하는데 봉급장이 한번 안한 정치인들도 대부분 부자로 살고, 장관 봉급은 벤처기업가만도 못하던데 정부에 신고하는 재산은 왜 그렇게들 많죠? 왜 아버지는 정치인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반공을 국시로 배워왔고, 국산품을 애용하고, 가족을 위해 흘린 땀이 진정 중요하고, 나를 희생하여도 조국과 우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질서를 지키며 올바르게 정직하게 더불어 사는 것이 부와 지위와 권력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있는 것인 것을 알고 살아왔는데 IMF와 정부의 어둡한 정책, 급변하는 사회변화 속에서 나를 혼란시키고 삶을 흔들고 있다. 무엇이 삶의 가치고 무엇이 존재의 가치인지, 이 혼돈스런 세상에 나의 정체는 어디있는지, 지금도 지나가는 노란 머리를 쳐다보며 혼돈 속에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확실한 원칙과 기준이 아닐까 한다.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는 어떠한 것도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쯤 깨우칠 수 있을까?

<김은태 사무국장 : ksae1@ksae.org>

드롭은 안돼!

실력이 그만그만한 두 사람의 앙숙이 골프 카를 함께 타고 내기 골프에 열중하고 있었다.

파4의 미들 홀. 첫번째 친구의 티 샷은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페어웨이 한 가운데로 떨어졌다. 돈을 제법 잃고 있던 두번 째의 사나이는 멀리 보내고 싶은 욕심이 앞서, 미스 샷을 범하고 말았다. 오른쪽으로 엄청나게 휘어져 아스팔트로 포장이 된 카트 길 위에 떨어지고 만 것이다. 울상을 지으며 두번째 사나이가 친구에게 간청했다.

"이봐, 아스팔트 위에서는 무벌타 드롭을 해도 되겠지?"

"천만에! 우리가 언제 그렇게 너그러웠나? 절대로 안돼. 골프 룰을 함부로 바꿀 수 있나? 암, 절대로 안되지. 벌타를 먹기 싫다면 공이 놓인 자리에서 그대로 치라고."

적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만끽하며, 첫번째 친구는 자기의 7번 아이언을 빼들고 의기양양하게 페어웨이로 걸어 나갔다. 좋은 라이에서 가볍게 세컨 샷을 구사한 그는 공이 그린에 무사히 안착하는 것을 보고 카트 길의 친구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아니나 다를까, 카트 길위의 불쌍한 친구는 클럽을 연신 아스팔트 위에 찍어대며 연습 스윙을 되풀이할 따름이었다.

'쫄쫄...클럽이 망가지지 않고 온전할까?'

대여섯 번의 연습스윙으로 아스팔트에 스파크가 번쩍 번쩍 생길 만큼 골프채를 찍던 불쌍한 친구가 드디어 세컨 샷을 날렸다. 웬 걸? 잘 맞은 공이 그린 위의 홀 컵에 1미터도 안 되게 불고 마는 게 아닌가.

"야, 이거 대단한데, 도대체 몇 번으로 친거야?"

"응, 자네 거 6번 아이언!"

Good news & bad news

한 프로골퍼가 투어 경기 도중 성적이 시원치 않아,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갔다. 그는 성적이 부진한 이유가 자신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단지 불운이 겹쳐서라고 믿고 있어서 점쟁이에게 불운을 쫓아달라고 부탁할 참이었다.

그러나 그는 점쟁이를 신뢰할 수가 없어서, 먼저 점쟁이를 테스트하기 위한 질문을 했다.

"천국에도 골프장이 있을까요?"

점괘를 보던 점쟁이가 한참만에 대답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같이 있군요."

"좋은 소식은 뭡니까?"

"네, 천국에도 골프장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지상의 골프장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더없이 아름답고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뭡가요?"

"나쁜 소식은 바로 그 골프장에서 내일 아침 여덟시 정각에 당신이 티업하기로 부킹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핸디캡

싱글 골퍼 한 사람이 처음 가본 골프장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었다. 세번째 홀의 티 샷을 끝내고 세컨 샷을 하려는 순간, 웬 여자가 발가벗은 채로 손살같이 페어웨이를 가로질러 갔다. 막 어드레스를 하려던 그는 깜짝 놀라기는 했으나 '이 정도에 흔들려서는 안되지' 하고 골프채를 고쳐 잡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흰 가운을 입은 두 남자가 기를 쓰고 그 여자의 뒤를 따라 달려 지나갔다. 그 역시 산만해지는 마음을 가다듬어 신중하게 어드레스를 시작했다.

다시 공을 치려는 순간, 또 가운을 입은 남자가 나가 모래가 담긴 양동이를 양손에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들어갔다. 정신력이 뛰어난 골퍼였지만 결국 그는 샌크를 내고 말았다.

“도대체 뭐하는 작자들인가?”

약이 잔뜩 올라 동료에게 물었다.

“응, 여자는 근처 정신병원의 환자인데 매주 이맘때면 병원을 탈출해서 스트리킹 소동을 벌이지. 남자 세사람은 간호사들인데 달리기를 해서 제일 먼저 붙잡은 사람이 여자를 업고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네.”

“양동이 두개를 들고 뛰는 친구는?”

“지난주에 여자를 업는 행운을 누린 친구여서 양동이를 들고 뛰는 거지. 모래가 담긴 양동이 두개는 저 친구의 핸디캡이라나?”

골프는 만병통치약?

골프에 푹 빠져 사는 남편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아내가 필드에 나가려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다.

“당신은 왜 허구한 날 골프만 치세요?”

당신이 그렇게 골프에 미쳐서 얻은 게 뭐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저 시간낭비일 따름이라고요.”

“여보, 골프는 절대로 시간낭비가 아냐..... 음.....”

남편 머뭇거리자 아내가 재차 추궁했다.

“골프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구요, 예?”

“음..... 골프를 좋아하는 이유는 말이야..... 내가 지금 건강이 나쁘잖아.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남편이 의기양양하게 아내에게 으쓱했다.

“골프는 말야, 건강을 회복시켜 준다니까.”

듣고 있던 아내가 회의적인 시선으로 다시 물었다.

“흥, 골프가 당신의 건강을 회복시켜요? 그건 그렇다 치고 왜 당신의 건강이 나빠졌던 거죠?”

“음, 그건 말이야..... 음..... 음..... 그것도 골프 때문이었지. 너무 골프만 치다가..”